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란 국가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한 전통공예나 예능의 고도화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하며 통칭 ‘인간문화재’라고 불립니다. 그 지식과 기술의 보존 및 보급을 목적으로 정부는 매년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들에게 특별 조성금을 지급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제도는 1950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이 1954년 개정되면서 실현되었습니다. 이 개정을 통해 당시 문부성(현 문부과학성)은 역사적 건축물과 같은 유형문화재뿐만 아니라 전통공예나 예능 등 무형문화재 보호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된 사람은 누적 약 수백 명 정도입니다. 이 인정은 평생 유지됩니다. 현재 생존해 있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수는 최대 116명으로 정해져 있지만, 실제 인원은 이보다 적습니다.

중요무형문화재의 ‘공예기술’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이 9개 분야로 분류됩니다. 도예, 염직, 칠공예, 금속공예, 목죽공예, 인형 제작, 손뜨기 화지(일본 전통의 수제 종이), 염색한 상아에 문양을 새기는 ‘발루(撥鏤)’, 작게 자른 금박을 붙여 문양을 그리는 ‘기리카네(截金)’입니다. 또한 도예에서는 사이유, 칠공예에서는 마키에처럼 각 분야별 특정 기법으로 세분화됩니다.

공예기술의 많은 분야에서 이시카와현은 자랑스러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이시카와현에는 10명의 개인과 1개의 단체가 공예부문의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받았는데, 이는 현 인구 대비 보유자 수로 환산했을 경우 전국 1위에 해당합니다.